

## 투표일 임박할수록 부동산거래 증가 '이상한 선거' 표심 오리무중

### 총선 D-6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부동산거래가 오하러 늘고 있어 최악의 투표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무소속 벨트로 묶인 광주·전남지역 일부 선거구는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부동산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총선 판도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6·7면> 2일 광주·전남지역 각 후보 캠프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지역구의 부동산거래는 30%, 많게는 40%에 육박하고 있다. 조사 기관과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10명 가운데 3~4명 정도가 아직 지지 정당과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후보자 공천이 늦어지면서 인물에 대한 평가마저 늦어가는 버린 각 당의 한심한 공천 및 잡음 등에 따른 정치 혐오증과 무관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거래는 선거 막판의 변수에 따라 '술림현상' 등 극적인 이변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뒤지고 있는 후보 진영에서는 부동산거래가 잘 공략하면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 아래 막

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일보에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여론조사 결과, 광주 남구의 경우 21.4%, 광산구 갑 25.2%, 목포 19.7%, 무안·신안 34.8% 등으로 평균 25%대의 부동산거래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1일 실시된 2차 접전지역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남구 37.8%, 북구 갑 34.9%, 광산구 갑 32.9%, 무안·신안 41.5%, 목포 27% 등으로 평균 35%의 부동산거래율을 기록했다.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거래가 무려 10%나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투표를 포기해 버릴 공산이 크

다는 점이다. 여기에 각 후보의 경쟁전이 치열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확정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자세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에서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부동산 공략에 나서려는 한편 모든 조직을 총동원, 숨겨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선관위 측은 광주·전남지역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50% 초반대에 머무를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가 투표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유효투표의 절반을 득표한다 해도 유권자의 지지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산갑 토론회 '영산강 운하' 찬반 논쟁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 공동주최로 2일 광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광주 광산구 갑 국회의원 후보 초청토론회에서는 영산강 운하 사업이 이슈로 부각,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지상중계 7면> 이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영산강 운하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 조재현 후보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민주당 김동철 후보, 민노당 조소상 등 2명의 후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고, 무소속 송병태 후보 청토론회에서는 영산강 운하 사업이 이슈로 부각,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지상중계 7면> 이날 민주당 김 후보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환경 대재앙을 부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뱃길 복원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검증과 시민의 동의를 거친다는 전제 하에

해 2급수로 만들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송 후보는 "환경을 파괴, 재앙을 부를 것이며 투자 대비 효과에서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수질 개선과 환경 복원 차원에서 뱃목이나 유럽선이 다닐 정도면 찬성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평화통일가정당 박 후보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운하 형식이 아닌 경우 긍정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방부, 北에 강한 유감 표명

### 대북 전통문, 불가침 합의 준수 의지 거듭 천명

국방부가 2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합참의장 사과 요구와 관련 유

감을 표명하고, 불가침(不可侵) 합의 준수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경의선 출입관리사무소(CIQ)내 군 상황실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우리(남) 측은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인사가 발언한 내용을 귀(북) 측이 임의대로 해석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 불가침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남측에 대해 '북을 선제공격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가 전통문의 첫 머리에 불가침 준수 의지를 밝힌 것은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 제2장 제9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성실히 지켜갈 것이라는 의지를 전통문에 담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 역시 "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선제타격(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가침 합의 준수 의지를 밝힌 것은 북측의 '선제타격'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도 이 같은 표현을 전통문에 넣은 남측의 속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연희뉴스

## 남해안 크루즈 시대 열렸다



2일 여수시 신항 1부두에 입항한 2만2천톤급 일본 크루즈선 '니뽀 마루'(NIPPON MARU)호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취타대와 농악대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내리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청정해역 남해안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관광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크루즈 관광객들이 2일 여수를 찾았다. 크루즈 관광단의 여수 방문은 여수가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이고 금년이 '광주·전남 방문의 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 2만2천톤급 '니뽀 마루'호 입항 관광객 등 550명 "뷰티풀 여수"

2일 오전 8시 여수시 신항 제1부두. 2만2천톤급 일본 크루즈선 '니뽀 마루호'(NIPPON MARU·길이 167m, 폭 24m, 높이 14m)가 승객 350명·승무원 200명 등 모두 550명을 싣고 입항했다. 이들은 지난 달 30일 크루즈선을 타고 일본을 출발해 부산 등을 거쳐 이날 여수에 도착했다. 연령층이 주로 60~70대인 일본인 관광객들은 '니뽀 마루호'에서 여수시립국악단과 취타대, 농악대의 열렬한 환호 속에 배에서 내렸다. 은빛 물결 출몰하는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던 관광객들은 빼어난 한려수도의 경치에 반한 듯 갑판사를 연발했다.

관광객 스즈키 테루키(여·76)씨는 "경치가 너무 빼어나다네 공기 맑고 깨끗하다. 숲들이 확 트이는 것 같다"며 "한국 관광은 처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 정말 몰랐다. 기회가 된다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때 다시 한번 와 보고 싶다"고 말했다. 환영식을 마친 일본 관광객들은 8대의 리무진 버스에 나눠탄 뒤 국립공원 오동도 등대와 국보 제304호인 진남관(鎭南館), 수산시장으로 각각 향했다. 오동도에 도착한 관광객 60명은 광장에 설치된 음력본수대에서 눈을 떴지 못했다. 이시바시(83)씨는 "20년 전에 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도로 사정과 교통편 등 많은 게 달라졌지만 한려수도 등 관광지의 아름다움은 여전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오동도 관광 후 두 번째 관광지인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의 본영인 진남관으로 향했다. 일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진남관에 들어서자 입가에 핀 미소는 어느새 사라졌다. 요시무라 요시코(여·68)씨는 "고향이 경북 경주인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 후 고국인 일본으로 갔는데, 여정을 적부터 임진왜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다. 막상 와보니 숙연해 진다"고 말했다. 여수관광해설가 니시타케 타마오(여·36)씨는 "일본 관광객들이 여수에 대해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맘껏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니뽀 마루호'에 이어 3일에는 1만5천톤급 국내 연안크루즈선인 '팬스타 하니호'가 여수에 입항한다. '팬스타 하니호'는 올해 열 차례 정도 여수에 기항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전북 김제서 AI 의심 닭... 방역 '비상'

전남도는 2일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사육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닭이 발견됨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축산기술연구소로 중심으로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예방 등 차단 방역에 나섰다. 도는 전북도와 인접한 담양, 곡성,

영광, 장성 등의 유입도로 10곳에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796개 공동방제단·57대의 소독 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닭·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1일 농장주의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해 2일 의사 AI로 판정했다. /김주정기자 jjnews@

아름다운 기업-대한통운

## 대한통운

금호아시아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금호아시아나와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하는 대한통운-  
고객 한분 한 분을 위한 아름다운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